

‘호랑나비’로 받은 사랑 회향...

불자가수 김홍국 (김홍국장학재단 이사장)



불자가수 김홍국 씨는... 1959년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태어났다. 서라벌고등학교 시절 밴드부 생활을 했고, 해병대 전역후 그룹 '오대 장성'을 결성해 활동했다. 1985년 발라드 풍의 노래 '창백한 꽃잎'으로 솔로로 전향했고 1989년 3집 '호랑나비'를 발표 전성기를 맞았다. 1992년에는 '59년 왕십리'로 정통 트로트 장르까지 선보이며 인기가도를 이어나갔다. 이후 라디오 진행은 물론 영화와 드라마에도 다수 출연했으며 월드컵 때마다 국가 대표 축구선수를 위해 열띤 응원을 펼쳐 '월드컵 가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현재는 '김홍국 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소외 이웃에게 장학금을 전해 주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저서로는 <김홍국의 축구이야기>(2002년), <김홍국의 우끼>(2005년) 등이 있으며 주요 수상으로는 MBC 10대 가수상과 KBS 가요대상 올해의 가수상(1989년), 국민봉사 장려상(1993년),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상(1996년), MBC 라디오 골든 미우스상(2010년) 등이 있다.

사진=노덕현 기자

2000년, 새천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온통 축제의 분위기였다. 하지만 불자 가수 김홍국 씨는 이 축제의 현장을 뒤로하고 강원도 양양 낙산사 흥련암에서 새천년을 맞아 한 배 배 짚을 울리고 있었다. 불자로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그러는 동안 문득 한줄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호랑나비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어야겠다" 이렇게 원을 세운 김 씨는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이를하여 김홍국 장학재단. 그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15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했다. 불자로서 회향의 의미를 되새기며 묵묵히 이타행을 실천해온 것이다.

바라는 바 없이 나누면 행복해요

"매년 10명~11명의 학생들을 지원해 주었으니 150명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만해도 이렇게 오랜 시간 장학금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어요. 장학금 시즌이 돌아오면, 1년에 한번씩 후원금 통장을 찍어 보는데 15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도 여럿 돼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또한 지인들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만큼 이제는 많이 알려져 든든한 후원자들이 생겼어요. 주변에서 법인화를 권하기도 하는데 좀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5년 전부터는 원로가수 후원도 시작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는 연로하셔서 거동도 힘들고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져 쓸쓸하게 남으신 원로 가수분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1년에 2명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각종 홍보대사로도 앞장서 왔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과 생명나눔실천회 등 불교계 활동은 물론 독도 홍보대사, 한국자유총연맹, 2022 월드컵 유치위원회, 국방홍보원, 제1회 세계 해병전우인 축제 등 다양한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해왔다. 특히, 이전 승가원자비복지재단을 지인들과 함께 방문해 승가원 회원들과 축구경기를 하고 중식 요리사를 초빙해 요리한 중국음식을 직접 배식하는 등 장애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 주목받기도 했다.

이처럼 세상과 나누는데서 행복을 느끼는 그가 자비행을 처음 시작한 것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축구를 포기하고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해병대 전역후 보컬활동을 시작했어요. 없는 돈에 앨범도 몇 장 냈지만 별로 주목 받지 못했어요. 그때 제게 음악을 가르쳐주었던 선배의 딸 정아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돈이 많지 않을 때였지만 먹을 거 사가서 노래도 불러주곤 했는데 정아가 너무 좋아했어요. 당시, 배따라기 이혜민 씨가 만든 '정아'라는 노래를 부르며 모금 공연도 다녔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MBC 인간사대에 '정아의 겨울 일기'라는 제목으로 사연이 방영되기도 했어요."

이후 그는 이혜민 씨가 작사작곡한 '호랑나비'로 일약 스타가 되었다. 사랑을 주제로 하는 노래가 주를 이루던 가요시장에서 호랑나비는 신선한 가사와 특이한 모션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한눈에 사로잡았

다. '호랑나비의 강타'라고 할 만큼 80년대 후반 가요계를 휩쓸었던 그는 호랑나비로 '10대 가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눈 뜨고 일어나보니 스타가 되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 났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모두가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불심을 심어준 '어머니'

호랑나비 히트 이후 라디오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가수는 물론 방송인으로서의 자질도 인정받게 된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했던 저는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죠. 이후 서라벌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서라벌 예대 선배들의 축제 공연을 보게 됐어요. 또다른 세

“호랑나비 히트는 모두가 부처님의 공덕”

독실한 불자였던 어머니의 조언으로

90년대 불자가수 초대 회장직 역임

군부대·교도소 등 위문공연 '음성포교'

2000년 김홍국 장학재단 설립하고

지금까지 150여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5년전부터 원로가수 후원금 전달도

2015년 신곡 '불타는 금요일' 발표 예정

'사찰 순회 노래자랑' 등 불자가수 양성 절실

상을 경험했고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게 됐죠. 저희 어머니는 보따리 장사도 하고 구멍가게도 하시면서 어렵게 6남매를 홀로 키우셨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칭찬을 많이해주셨어요. 가난해서 해주는 것도 없는데 늘 밝고 긍정적이라며 언제나 크게 성공할 거라 말씀하시며 늘 용기를 주셨죠."

대한불자가수회 초대회장직 제안을 받았을 때 망설이던 그에게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좋은 기회라고 적극 권유했던 이도 바로 어머니였다.

"불교방송 개국을 하면서 대한불자가수회가 만들어졌고 회장직을 제안 받았어요. 당시 무명에서 벗어나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여서 스케줄도 바빴고 더구나 30대 초반의 제가 회장직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았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호랑나비가 잘된 건 네 덕이 아니라 부처님 공덕이다. 내가 전국 사찰 돌면서 기도 많이 했다. 모두가 부처님 세상 만드는 좋은 기회이자 더 큰 사рам 되라고 부처님께서 주신 기회이니 한번 열심히 해보라'며 적극 권하셨죠. 어머니께서는 늘 부처님 백으로 살고 있음을 잊지 말

라고 당부하셨어요. 지금도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불자가수회 초대회장은 물론, 4대와 9대 회장까지 역임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9대 회장 취임 당시에는 상임부회장으로 가수 이승철이 자문위원으로 엄정화, 김민중, 옥주현, 장윤정 등 유명 가수들과 함께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한 군부대와 전국 교도소 위문공연, 불우이웃 돕기와 일일차집 등을 하며 이웃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1990대 초 동국대 대학원에 입학해 불교음악을 공부하기도 한 그는 여전히 음악 분야에 관심이 없는 불교계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불자 가수들이 활동할 수 없는 무대가 없잖아 하는데 사실 불교 방송 매체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충분히 불자가수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교방송에서 버스한 대 정도만 제공해주고 불자가수들 태워서 전국 산사를 돌면서 산사음악회나 사찰노래자랑을 하면 신도님들도 좋아할 것이고 불자가수들도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아지겠죠. 음악 프로그램만 잘 만들어도 방송국이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불교 관련 방송 매체들이 이런 점을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동안 그를 불자로 키워준 어머니가 임종을 맞게 된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원 없이 어머니에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용돈도 많이 드리고 동네 잔치도 해드리고 이제는 마음껏 쉬시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죠. 아버지를 성북구 미타사라는 절에 모셔서 어머니도 그쪽에 모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불심이 깊으셨던 어머니는 자신을 화형해서 뿌려 달라고 유언을 남기셨죠.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미타사에서 49재를 마치고 인연이 있던 속리산 성불사에서 타상을 했어요. 당시 집전을 진행했던 스님께서는 이제 어머니와의 인연이 다했으니 잘 보내드리고 앞으로 좋은 활동 많이 하라고 격려해주셨어요.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어머니가 심어주신 불성은 제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축구'는 나의 힘

김홍국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축구다. 한때 축구선수의 꿈은 접었지만 그는 영원한 응원단장으로 남았다. 특히,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며 봉은사에서 2002배를 하며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새벽 3시부터 시작해 5시간 동안 2002배를 했죠. 스님한테 준비로 맞아가면서 2002배를 힘있게 마쳤어요."

우리 축구 대표팀이 7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하는 동안 그는 빠짐없이 응원을 다닌 것으로도 유명하다. "축구 선수 가족들도 이렇게 연속해서 월드컵 응원을 다니는 경우는 없었다고 해요. 저는 방송을 포기하면서까지 월드컵 응원을 다녔어요. 물론 아내한테 혼도 났죠. '꼭 당신이 가야 하는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정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바라는 바가 없어요. 대표팀을 응원하고 우리 축구를 응원하는 일이 정말 신나고 보람되고 좋아요. 또 선수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응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점

-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맑게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성한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건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